

언론동향(11. 22.)

《언론보도 목차》

1. (경인일보) 임진각서 2년만에 ‘DMZ RUN’ 행사 2
2. (국민일보) DMZ 마라톤 2년 만에 재개 3
3. (한겨레)2년 만에 다시 뛰는 ‘DMZ 9.19km’ 4
4. (경기일보) 한반도 평화 품고 · 역사생태지대 ‘힘찬 페달’ 4
5. (조선일보) ‘DMZ 평화의 길’ 8코스 열려 5

경인일보

2021년 11월 22일 (월)
03면 종합



임진각서 2년만에 '디엠지 런' 행사 21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디엠지 런(DMZ RUN) 9.19km 코스 참가자들이 민간인통제선을 따라 달리며 손을 흔들고 있다. 경기도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했던 디엠지 런 행사를 2년 만에 재개했다. /연합



DMZ 마라톤 2년만에 재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21일 2년만에 재개된 DMZ런 9.19km코스 참가자들이 민간인 통제선을 따라달리고있다. 연합뉴스



2년만에 다시 뛰는 'DMZ 9.9km' 경기도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코로나19에 따라 25개월 중단했던 다중목적DMZ달리기 행사를 2년 만에 재개했다. 2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다중목적달리기 9.9km 코스 참가자들이 인간인공제선을 따라 달리고 있다. 파주/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경기일보

경기일보

2021년 11월 22일 (월)
11면 수도권

한반도 평화 품고... 역사·생태지대 '힘찬 페달'

2021 Tour de DMZ

도 주최·경기문화재단 주관·통일부 후원
김포·파주·연천서 '엔택트 라이딩' 스타트

비무장지대(DMZ) 인근 풍광을 눈에 담으며 평화의 자전거 페달을 밟을 수 있는 '2021 Tour de DMZ(투르 드 디엠지)'가 개막했다.

올해 투르 드 디엠지는 지난 20일 오전 김포 함상공원과 파주 임진강역, 연천 연천공설운동장 등 3곳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이 주관, 통일부 후원으로 진행됐다. 앞서 추진된 대회와 다르게 올해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엔택트 레이스' 형식으로 꾸며졌다.

참가자들은 희망하는 코스에 따라 각자 김포와 파주, 연천 중 원하는 장소를 개별적으로 찾아 레이스에 참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코스별 1일 2회 출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집합이 금지됨에 따라 1회당 49

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참가자들은 별도로 지정된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현장에 도착, 각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출발해 코스를 완주했다. 참가자들은 DMZ 인근 태초의 자연이 살아숨쉬는 듯한 풍경을 감상하며 라이딩을 즐겼다.

올해 대회의 코스는 20km와 40km 등으로 나눠 구성됐다. 김포 코스는 함상공원에서 출발한 뒤 20km는 김포사이드CC 인근에서 반환, 40km는 문수산로 337 인근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짜여졌다. 파주의 경우 임진강역에서부터 20km는 낙하리 182-8번지 인근, 40km는 새오리로 59-89번지 인근에서 반환하는 코스로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연천 코스는 연천공설운동장에서 20km는 기차길 표지판 80여 도로, 40km는 연신로 1622-1번지 인근에서 반환해 돌아오는 것으로 구성됐다.

이들러 완주 인증도 추첨해 대회 완주자에게는 완주메달을 증정한다.

한편 2021 투르 드 디엠지는 오는 27일에도 김포와 파주, 연천 등 3개 코스에서 평화의 자전거 라이딩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창학·채대병기자



'2021 Tour de DMZ' 엔택트 자전거 라이딩 첫날인 지난 20일 코스 중 한 곳인 파주시 임진강역 인근 출발선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조주현기자

朝鮮日報

2021년 11월 22일, 월
17면 지역

'DMZ 평화의길' 8코스 열려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곳곳을 탐방하는 'DMZ 평화의길'이 일반인에게 개방됐다. 인천 강화군에서 경기도 북부를 거쳐 강원도 고성군까지 총 526km에 걸쳐 조성한 둘레길이다. 대북 접경지 10개 시·군의 생태·역사·안보 자원을 활용해 만들었다.

정부는 "전체 11코스 중 노선 전개와 철새 보호 등을 위해 연천·철원·인제 등 3곳을 제외한 8개 코스를 개방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 강화 코스는 강화전쟁박물관과 강화평화전망대, 의두분초, 분자두대 등을 둘러본다. 경기 김포 코스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망대에 올라 임진강과 예성강 등이 합류하는 조강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 파주 코스는 통일대교와 도라전망대, 봉문을 지난다. 강원 고성 코스는 통일전망대와 금강산 전망대를 지난다. 참가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홈페이지(www.dmzwalk.com)와 모바일 앱 '두루누리' 등을 통해 예약을 해야 한다. 파주=조철오 기자